

영광 상사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

‘불갑산 상사화축제’ 15~24일... 입장료 3천원 지역화폐 환원
‘영광 투어’ 완주하면 특산품 선물... 대학 가요제·한복대회 등

오는 15일 '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열리며 불갑산 산자락에 330만㎡ 붉은 웅덩이 깔린다.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불갑산 관광지 일원에서 '상사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라는 주제로 23번째 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현재 상사화는 최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5%의 개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상사화축제는 천년 역사를 지닌 고찰 불갑사를 품은 불갑산 일대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작했다. 연간 40만명이 방문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을꽃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 기간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행사장에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상사화 꽃길 걷기와 '상사화 달빛 야행' '상사화 소원의 길'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등 대표 행사를 만날 수 있다.

상사화를 소재로 한 창극과 전남도립극단 공연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상사화 꽃매시 선발대회'와 '상사화 다솜 가요제' '상사화 대학가요제' '상사화 군민가요제' 등 경연도 행사 기간 곳곳에서 치러진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영광 상사화 대학가요제'는 축제 개막일인 1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대회 첫날에는 1차 심사를 거친 16개 팀이 무대

에 오른다. 이튿날에는 2차 예선을 통과한 최종 8개 팀이 본선을 치른다.

1등에게는 상금 500만원, 2등 200만원 등을 준다.

20일에는 '대한민국 선비한복모델선발대회 본선'이 축제 상설무대에서 열린다. 앞서 16일에는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예선을 치른다.

이 대회는 영광군 불갑면 출신 수은 강항선생(1567~1618)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다.

수은 강항은 정유재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우다 붙잡혀 왜국으로 끌려가 포로 신세가 됐음에도 기개를 굽히지 않았으며, 왜국의 동정을 기록해 조정에 보고했다. 또한 포로로 지내는 동안 일본에 성리학을 전파해 일본 근세 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올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축제 입장료를 받으며 첫 '유료화'를 시행한다.

일반 입장료는 3000원이다. 입장료를 낸 방문객들은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을 받아 축제장과 영광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장료는 축제 기간에만 영광군과 축제추진위가 징수한다.

영광군민이거나 5세 미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임신부라면 증빙 서류를 제시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오는 15일 불갑산 관광지 일원에서 개막하며 열흘간 붉은 상사화 물결을 펼친다. 지난해 축제 모습. <영광군 제공>

또 1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사화축제와 함께 즐기는 영광군 투어' 4개 구간 가운데 하나를 완주하는 관광객 100명(선착순)에게 영광 특산품 모시잎 송편을 보내주기로 했다.

'영광군 투어'는 당일 일정한 '특산물·해양 코스' '자연문화 코스'와 1박 2일 일정한 '오전에 만나는 상사화' '아간에 만나는 상사화'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었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축제가 열리는 24일까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객에게 5000원 할인권을 준다.

먹깨비로 영광지역 점포에 1만5000원 이상 주문

하면 즉시 5000원을 할인(1인당 1회·선착순 1000명)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발행한 자체 할인권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먹깨비 앱은 10% 할인 판매 혜택이 있는 영광사랑카드도 결제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결정된 입장료 징수는 군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축제가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만족스러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분야별 군민 11명으로 구성
연 1회 정기평가 등 점검·조정

진도군은 최근 민선 8기 공약사항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분야별로 군민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연 1회 정기평가를 포함해 공약이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조정과 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평가단은 민선 8기 군수 재임기간인 2026년 6월까지 활발한 활동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지난해 10월 ▲다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대 목표와 87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 추진 중에 있다.

9월 현재 공약사항 이행 완료율은 31%이며, 전체 추진율은 63%에 달한다.

군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을 제고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약 제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추진 중인 공약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110억

해남군 공공예금 이자 수입 두 배 증가... 전략적 운영 성과

해남군은 올해 연말까지 공공자금 이자수입이 11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일반·특별회계 47억원, 기금 68억원 이자수입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자수입 54억원 대비 61억원이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자수입 증가는 고금리 영향과 함께 유류자금을 장단기별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 배치하고 중도 해지를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한 결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지난 7월3일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자금 운영실적을 연 2회 군홈페이지에 공개, 공공자금 운영실적을 군의 회에 보고하는 등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올 1월 공공자금 운영과 관리 계획을 수립, 월별 자금수요와 예금이용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특별회계과 기금 담당자 자금 운용 교육과 예산, 지출부서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금은 철저한 금고 관리와 능동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경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12일 운영 재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점심 제공...상반기 8400여 명 이용

목포시는 휴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중단됐던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이하 밥차)가 오는 12일부터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 밥차는 오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이후 휴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 전국(장애인)체전 기간과 밥차 운영기간이 겹치는 10월 17일과 11월 7일에는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잠시 쉬어간다.

한편 매주 1회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식사와 재능기부 공연을 펼친 '사랑의 밥차'는 상반기에 14차례 운영해 840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영암군, 최대 130만원

영암군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4500만 원으로, 이는 친환경자동차 34대 물량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이동형 충전기는 최대 15만 원, 벽 부착형이나 스탠드형 충전기는 최대 130만 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영암군 등록 전기자동차 소유자 중 영암군의 집·직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주민이다.

특히 신청된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인 개인, 현재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원하는 충전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영암군 환경기후과에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특립유공자,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영암군 전기자동차 연속 등록기간이 오래된 차가 유리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시키고, 군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 「둥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